

##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

신창작이론(新創作理論)의 정당한 이해를 위하여

우리들의 문학, 예술을 일층 높은 발전의 계단으로 높이어 나가고 진실로 풍부하고 위대한 예술적 달성의 수준으로 그것을 이끌어 나아가 갈 새로운 창작이론은<sup>1</sup> 한번 이 땅에 수입되자 진실로 유쾌한 형태로 왜곡되면서<sup>2</sup> 유포되고 있다.<sup>3</sup>

• 『조선일보』, 1934.4.14~25.

<sup>1</sup> 사회주의리얼리즘론을 말한다. 사회주의리얼리즘론은 그 이전의 좌파의 문학이론들에 비해 ‘객관적 현실’을 중시함으로써 이 무렵 좌파문학인들의 전향의 밑거름 역할을 하기도 했다.

<sup>2</sup> 진실로 유쾌한 형태로 왜곡되면서: ‘그것은 眞實로 有害한 形態로 特殊化되고 歪曲되면서’(원 발표문).

<sup>3</sup> 이 다음에 원 발표문에서의 다음 단락이 생략되었다. “이榮譽 잇는 特殊化, 具體化의, 創作的 理論的 實踐의 代表者가, 그 大部分을, 過去의 ‘카프’ 藝術運動 가운데서 만든 ‘不名譽의 名譽’와 함께 그 日常活動을 裝飾하던 諸君들 가운데서 發見할 수 잇는 것은, 축음도 偶然한 事實은 아니다. / 왜 그러나 하면, 이 創作理論은 이러한 諸君들의 思想的 範圍 내에서 理解되고, 그들의 藝術的, …… 路線에서 具體化되었기 때문이다. / 그럼으로 ‘…… 레이리슴’의 理論은 그 理論의 核心的 思想인 藝術文學團體 再組織에 關한 ‘러시아’의 ‘四·二三 테-제’가 말하는 바와 가티 藝術文學

혹자에<sup>4</sup> 있어서는 형식주의의 부활에, 혹은 예술지상주의에의 복귀를 위하여, 혹은 시민문학으로<sup>5</sup> 일직선적인 전회<sup>6</sup>를 은폐키 위하여, 혹은 불성실한 자기의 과거를 위한 변해<sup>7</sup>를 등등, 실로 헤일 수 없을 만치 다양한 방면<sup>8</sup>에 이 이론은 귀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에 역시 그들은 이 이론에다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어느 때 또 누구의 소위<sup>9</sup>인지도 모르게 이 이론은 막연한<sup>7</sup> '리얼리즘의 실천'이란 간소한 개념으로 바꾸어 놓아버리었다.<sup>8</sup>

'현실의 있는 그대로를 그려라' 과거의 문학의 제<sup>9</sup> 실천은 이데올로기만 중시하고 형식의 특수성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예술이다.'<sup>9</sup>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를 문학<sup>10</sup>으로부터 떼어버리고 예술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동시에<sup>11</sup>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증류수와 같은 순수한 예술 위에 서야 한다는 절규가

의 事業을 잊게 보다 더 긴밀히…… 實踐에 有用하게 結合시킨다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잊게 藝術과 그 運動에서 '이데올로기'를 逐出하느냐 하는 데 即 그들의 日常 主張하는 바와 가타 藝術 一般으로부터의 政治的 完結한 驅逐을 爲해야 그것은 曠히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러시아의 '4·23 테-제'란, 라프 해산을 명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1932년 4월 23일자 결의 「문학·예술단체의 재편성에 대하여」를 말한다. 이 테제에 기초하여 라프는 해산되고 이후 사회주의리얼리즘론을 둘러싼 논의를 거쳐 소비에트작가동맹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 4 혹자에: '그리하여 或者에'(원 발표문).
- 5 시민문학으로의: '뿌르文學으로의'(원 발표문). '뿌르문학'이란 부르주아문학의 준말. 이하 원 발표문에는 '뿌르조(지)'로 씌어진 것이 『논리』에서는 거의 모두 '시만'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 6 방면에: '曲藝的 行爲의 技術로'(원 발표문).
- 7 막연한: '그 모든 本來的 核心的 具體性이 除去되고'(원 발표문).
- 8 놓아버리었다: '노히버리었다'(원 발표문).
- 9 박영화(朴英昊)가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동아일보』, 1934.1.2~1.11)이라는 글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 10 문학: '푸르레타리아文學'(원 발표문).
- 11 이 사이에 원 발표문에는 다음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 "運動으로서의 文學, 藝術도, 그 指導의 思想, 精神을 放棄하고"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설명과 주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누구의 눈에도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한 개의 특별한 사상으로, 한편으로는<sup>12</sup> 예술문학의 당파성의 완전한 부정이고 문학적으로는 낡은 18세기의 소위 '절대객관적 몰아<sup>13</sup>의 사실주의'에로의 복귀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문학은 한 백년 전의 과거로 퇴각해야 한 단 말이다.<sup>13</sup>

그러나 인간이나 자연의 제 역사 가운데 있어 동일한 것이 반복하는 예는 없다.<sup>14</sup> 그들은 문학이<sup>15</sup> 현실을 반영하는<sup>16</sup> 성질, 한계에 대하여 전<sup>17</sup>히 추상적인 객관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리얼리즘을 마치 맑은 호수가 하늘의 별을 반영하는 것같이 절대 몰아<sup>18</sup>의<sup>17</sup> 사실<sup>18</sup>로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실주의적 방법만 가지면 호수가<sup>18</sup> 낡은 새도 지나가는 구름도 공허한 하늘도 모두 있는 그대로 무엇이고 반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문학은 현실의 전부를 그 가운데 반영할 수 있으며, 반대로 현실이면 아무것을 그려도 훌륭한 문학이 될 수 있다는 기괴한 견해

- 12 한편으로는: '政治的으로는'(원 발표문).
- 13 이 다음에 원 발표문에서의 다음 한 문장이 생략되었다. "이 文學理論의 核心 思想은, 辯證法的 唯物論으로부터 俗流 實存論으로의 潛走 그것이다."
- 14 것이 반복하는 예는 없다: '것의 反復이란 그 例가 있는 것이며'(원 발표문). 그리고 이어서 원 발표문에서의 다음 문장들이 생략되었다. "萬一 그랬다 하면, 歷史는 成立하지 안으면, 따라서 세계는 存在하지 안게 될 것이다 / 그러지 안으면, 時間 獰는 運動과 그 變化를 內容으로 하지 안는 '純粹 時間'이나 藝術의 不變의 恒文性'恒久性'의 오자일 것이다. -편재의 概念이라, 觀念論의 世界로 들어서고 말 것이다."
- 15 그들은 문학이: '뿐만 아니라 이것과 同程度로 文學이'(원 발표문).
- 16 반영하는: '映影하는'(원 발표문).
- 17 몰아의: '沒我主義의'(원 발표문).
- 18 호수가: 원 발표문에 의거하였다. 『논리』에는 '湖水도'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원 발표문의 것이 타당하다.

에<sup>19</sup>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리얼리즘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상가는 한 개의 최종요<sup>19</sup>의 사실 앞에 맹목이라는 것을 곧 폭로하고 마는 것이다.

즉 문학은 호수의 물과 같이 무의지<sup>20</sup>한 자연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소산이라는 점을<sup>20</sup>…….

왜 이것이 중요하나 하는 것은 긴 설명을 요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sup>21</sup>

문학은 인간의 것이다.<sup>22</sup> 그러므로 인간의 의식성, 주관이 전면<sup>23</sup>에서 있는 문학적 조류인 낭만주의문학은 물론이어나와 우리들이 즐기어 예 드는 발자크H. Balzac · 스탕달Stendhal의 사실주의도 결코 완전한 몰아주의요 절대적 객관성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sup>23</sup>

이것은 단순히 이론을 위한 논리가<sup>24</sup> 아니라 실제로 과거의<sup>25</sup> 사실주의문학을<sup>26</sup> 면밀히 연구한 결과로 도달한 것이다.<sup>27</sup>

발자크, 스탕달, 톨스토이L. N. Tolstoi<sup>28</sup>의 사실주의문학은 호수에 의

하여 썩어지지 않고, 인간인 작가의 머리를 통해서 썩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의 사실주의문학은 주관과 자이로부터 진공<sup>29</sup>을 새에 두고 격리되어 있지 않다. 즉<sup>29</sup> 낭만주의문학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절연<sup>30</sup>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문학사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순수한 사실주의와 조금도 사실적이 아닌 낭만주의를 구별하는 것은 오직 추상계<sup>31</sup>에 있어서만 가능한 것이고, 현실적으로<sup>31</sup> 양자가 다 상대적인 한에 사실적이고 낭만적이다.

그러나 이 상대적이란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자가 가지고 있는 엄밀한 불가침의 특수성은 결코 부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특수성의 강조 없이는 모든 것이 혼돈하고 역사에 있어 평가가 불가능케 된다.<sup>32</sup> 문학 가운데는 보다 사실적인 시대, 보다 낭만적인 시대가 있으며, 작품과 작가에 있어서도 사실적인 것이 낭만적인 것에 비하여 지배적인 수가 있으며,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학의 역사 위에서 이러한 사실적·낭만적인 것은 지배적인 2대 경향으로 표현되어 문학사의 현실은 이 양대 조류의 상호 삼투<sup>33</sup>, 대립, 상충의 복잡한 작용으로 각각 그 특수화된 성격을 구현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문학상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표현되는<sup>33</sup> 모든 것을 낭만적인 것이라고 부르며, 그것이 사실적인 것의 객관성에 대하여

19 견해에: '理論에'(원 발표문).

20 점을: '것 압제'(원 발표문).

21 이 다음에 원 발표문에서의 다음 문장이 생략되었다. "人間이 업시 文學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임으로……./ 願컨대 이러한 學識 있는 寫實主義 文學理論家 諸君은, 人間이 發生하기 前, 人間이 自然的 生物-動物의 人間으로서 다시 말하면 意識을 가진 人間-人間の 人間으로 進化되기 以前에 文學作品을 그 빛나는 論文에서 例證해 주었으면 얼마나 조율자?"

22 원 발표문에서는 이 문장이 빠져 있다.

23 있는 것이 아니다: '있지 안타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원 발표문).

24 논리가: '逆說인 論理가'(원 발표문).

25 과거의: '우리들의 過去에'(원 발표문).

26 문학은: 「논리」의 원문에는 '文學의'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수정하였다.

27 문학은-도달한 것이다: '文學의 精密한 研究의 結果로 到達한, 一個의 常識에 不達하는 것이다'(원 발표문).

28 톨스토이: "메리메", "뫼트잠"(원 발표문).

29 있지 않다. 즉: '있지 안으며 同時에'(원 발표문).

30 추상계: '非現實의인 抽象界'(원 발표문).

31 원 발표문에는 이 사이에 '그것은'이란 단어가 삽입되어 있다.

32 된다.: '되는 것으로'(원 발표문).

33 표현되는: '現象되는'(원 발표문).

주관적인 것으로 현현<sup>34</sup>하는 의미에서 '낭만적 정신'이라고 부르고 싶다.

따라서 이곳에서 부르는 낭만적 정신이란 개념은 어떤 특정의 시대, 특징의 문학상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원리적인 범주로서 칭호<sup>35</sup>되는<sup>34</sup> 것이다.

왜 이것을 원리적인 범주라고 부르느냐 하면 먼저도 잠깐 말했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자연, 인간 그 어느 것이나 혼자가 고립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생활적 관계 가운데서 형성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인간의 의식적 활동의 일 소산인 점에서,<sup>35</sup> 문학적 현실이란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낭만적인<sup>36</sup> 것의 상호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때문이다.<sup>37</sup> 따라서 문학적 현실의 세계라는 것은 객관과 주관의 상극적<sup>38</sup> 운동에서 현실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의 모순되는 관계 가운데서 형성되며 반대로 문학적 현실은 현실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으로 전부가 환원되기 때문이다.<sup>38</sup> 이러한 의미에 있어 문학에 있어 사실적=서사적인 것과 낭만적=서정적인 것은 진실로 원리적인 양태의 범주다.

그러므로 문학사 상에 명멸한 수다<sup>39</sup>의 경향의 문학적 조류도 이 양태 범주의 역사적인 운동 형태로 볼 수가 있다.<sup>39</sup> 이것은 문학사의 평가에 있어 극히 중요한<sup>40</sup> 계기의 하나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개념의 역사적 활동은 단지 시간적일 뿐만 아니

라, 역사 자체가 그러한 것과 같이 공간적인 것, 즉 역사 그것의 각 시대가 되고 있는 사회적 내용에 의하여 다시<sup>41</sup> 제약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시대 가운데에 생활하는 인간들의 사회적 제 관계가 오히려 문학의 역사에 있어서는 역사의 자연사적 방면보다도 지배적인 힘을 발휘한다.

물론 사회의 생활적 제 관계는 그 시대의 인간이 자연과 관계하는 정도,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 생산력의 발달 수준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 그 위에 서는 사회적 제 관계가 모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조건으로 말미암아<sup>42</sup> 일층 더 문학적 성격은 좌우되는 것이다.

문학 가운데서 사실<sup>43</sup>과 낭만, 두 개의 운동을 어떻게 제약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논문을 하나 필요로 하는 것이나 이곳에서<sup>43</sup> 간략한 윤곽을 그리면 대체 이렇지 않은가 한다.

첫째 문학이란 관념적 산물이 모두가 그러한 것과 같이 항상 그 시대, 그 사회를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그 계급에 의하여 지배되어 있다.

(...약<sup>44</sup>)<sup>44</sup> 과도적 시대의 문학은 대단히 복잡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전자가 내용적으로 과거와 결부되어 가는 대신 형식적인 완미<sup>45</sup>를 추구하여 공허한 스타일의 균제<sup>45</sup>만이 남아서 일종의 형식주의가 지배적 경향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후자에 있어서는 미래에<sup>45</sup> 대한 뜨거운 정열과 커다란 공상이 앞을 서서 형식, 스타일에 대한 배려는

<sup>34</sup> 칭호되는: '構成되는'(원 발표문). 원 발표문의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sup>35</sup> '점에서,'는 원 발표문에 따른 것으로, 「논리」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sup>36</sup> 동시에 낭만적인: '全浪漫的인'(원 발표문). '술'은 '순'의 오자일 것이다.

<sup>37</sup> 때문이다: '때문이고 이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원 발표문).

<sup>38</sup> 환원되기 때문이다: '還元되면 그 남어지는 無이기 때문이다'(원 발표문).

<sup>39</sup> 운동 형태로 볼 수가 있다: '運動 以外の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원 발표문).

<sup>40</sup> 극히 중요한: '最重要的의'(원 발표문).

<sup>41</sup> 다시: '두번 細密하게'(원 발표문).

<sup>42</sup> 원 발표문에서는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빠져 있다.

<sup>43</sup> 원 발표문에는 이 사이에 '不充分하나마'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

<sup>44</sup> 원 발표문에는 이 사이에 '이러함'이란 단어가 삽입되어 있다.

<sup>45</sup> 미래에: 「논리」에는 '未來'로 되어 있으나, 원 발표문에 의거해 바로잡았다.

제이의적第二意的인<sup>46</sup> 위치에 있게 되어 내용의 편중주의偏重主義가 지배적으로 문학 위에 나타나게 되는<sup>47</sup>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새로운 문학의 역사적 담당자가 아직도 물질적으로 성숙치 못하고 문화적으로는 과거의 문화에 대하여 아직 자기의 문화의 독특한 형식을 획득하기 전의 문학적 경향인 것이다.

이것은 18세기의 최후의 30년과 19세기의 최초의 20-30년간을 통하여 구라파歐羅巴 문학사 상에 출현한 문학적 경향으로서 낭만주의에서 그 가장 적당한 예를 찾을 수가 있다.

그리하여 중세적 고전주의에 대하여 대두한 이 몰이주의沒我主義는 단일적 개념으로서의 낭만주의가 아니라, 국민적—영토·독립·불평 등등의 특수적 낭만주의로 표현되었다.<sup>48</sup>

왜 그러나 하면 이것은 단지 각국의 문학의 전통이나 사회 정치적 조건이 틀리다는 데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전주의가 세계주의—초민족적 인류애를 염두에 둔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초 위에서 있는 대신,<sup>49</sup> 낭만주의는 국민주의—신홍 부르주아지의 민족 통일과 국민적 국가의 형성의 세계관 위에서 있는 데 그 핵심적 이유가 있다.

그리고 더욱이 고전주의가 전 사회의 공통한 논리를 대전제로 한 대신 낭만주의가 개인적인<sup>50</sup> 생활 감축, 태도 등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sup>51</sup> 고전주의적 문학에 있어 성격의 논리적 보편화가 지배적인 대신에 낭만주의적 문학은 극단의 개성화를 대치하였다. 그들은 그때의<sup>52</sup>

세계관 위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낭만주의문학은 근대 시민사회의 고유한 예술인 리얼리즘을 실현하기 위한 일 전제로서 고전적 문학을 '부정'하고 '비판'한 대신<sup>53</sup> 새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치 못한 것으로 역시 과도적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낭만주의는 명확히 사회적 진화의 노선 상에서 귀족, 자산가의 문화로부터 공업, 자본가의 문화로의 추이기轉移期인 사회적 전환기에 조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19세기 후반의 귀족적 낭만주의가 신홍하는 사실주의에 대하여 반항을<sup>54</sup> 시트한 것에 대하여, 이 시대의 낭만주의는 역사주의적인 다시 말하면 진보적 낭만주의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역사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주의, 낭만주의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것, 주로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구라파문학 상에 나타났던 고전주의로부터 낭만주의를 거쳐 사실주의에 이르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이것의 역사적 사회적 구체성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문학이 대체로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그 반영을 가장 객관적으로 실행하는 사실주의문학이란 어느 정도의 한계하에 있는가, 하는 이 두 개의 사실을 해명해야 한다. 우선<sup>55</sup> 일반적인 기초적인 테마로서 후자의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문학이란 그 정도나 한계에 다소간 상거<sup>56</sup>가 있을지언정 그것이 어떤 의미로서이고 객관적 현실세계를 내용으로 하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sup>57</sup> 그리스 시

46 「논리」나 원 발표문 모두 '第二意的인'으로 되어 있다.

47 나타나게 되는: '顯現되는'(원 발표문).

48 로 표현되었다: '될 수 있는 것이다'(원 발표문).

49 있는 대신: '있는 것과는 反對로'(원 발표문).

50 원 발표문에서는 '개인적'에 방점이 찍혀 있다.

51 알 수 있다: '세분 細(원 발표문), '세분'은 '분 세'의 오식일 것이다.

52 원 발표문에는 이 사이에 '부르주아지-적'이 삽입되어 있다.

53 '부정'하고 '비판'한 대신: "'否定'한 '批判'하고'(원 발표문).

54 반항을: '投矢를'(원 발표문).

55 원 발표문에는 이 사이에 '도대체'란 단어가 삽입되어 있다.

대의 옛날로부터 부정할 수 없는<sup>56</sup> 진리다.

옛날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시학』에서부터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고 불려왔고 또 사실 서정적·낭만적인 것에 비하여 서사적·사실적인 것이 본원적인 것은 다음의 사실에 의하여 진리가 아니면 아니 된다.

즉 문학은 그 원시적 형태에서부터 서정시로서보다는 서사시로서 발전해왔고, 혹은 서사시적 요소를 점점 더 많이 가해가면서 서정시로서의 발전을 피한 것이다.

그것은 문학이 본래<sup>57</sup> 언어적 형상을 통한 감정이나 정서의 전달이기 때문에<sup>58</sup> 그 감정 정서를 생생한 힘<sup>59</sup>으로 남에게 전하려면 그러한 감정 내지 정서를 일으키지 아니치 못한 일정한 상태의 사실적<sup>60</sup> 형상을 제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그것은 언어적 수단에 의한 사실적 형상의 구성이란 의미에서 한 개의 한정을 갖는 것이다. 즉 언어는 인간이 말하는 언어이며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인식 사유 등의 주관적<sup>61</sup>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므로 비자연적 정신적인 요소가 숙명적으로 가미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주관은 작자가 현실 가운데서 어떠한 대상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과, 그 대상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 하는 두 가지 영역에서 표현되어 결국 리얼리티란 한정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즉 리얼리즘의 이상은 자연이나 현실 생활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실감을 주게 하는 방법, 그것을 말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국 어떠한 문학에 있어서이고 주관은 불가분의 것이며,<sup>62</sup> 문학의 사실적<sup>63</sup> 이상의 실현이란 것은 작자가 인식하고 사유한 객관적 현실과 독자가 그 작품을 통해서 인식하고 사유한 현실이 근사<sup>64</sup>하고 접근하고 조화될 때 비로소 그 상태에 도달한다.<sup>65</sup>

다음으로 고전주의로부터 낭만주의, 사실주의의 과정은<sup>66</sup> 먼저 절에서 약간 말한 바도 있으므로<sup>67</sup> 간략<sup>68</sup>하게 말하면 대개 다음과 같을까 한다.

전체로 고전, 낭만, 사실<sup>69</sup>에, 그리고 사실로부터의 자연주의문학이 발흥하는<sup>70</sup> 과정은 봉건적 중세에 대한 시민계급의 충동과 전 사회 생활에 있어서 평민계급의 지배권 확립의 제 과정의 반영이며, 사상적으로는 시민적<sup>71</sup> 세계관과 봉건적인 그것과의 사이의 세계관상의 충돌의 일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전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낭만주의가 성립하였고, 진정한 개인주의와 실증적 세계관 상에 선 사실주의문학의 성립과 함께 반<sup>72</sup>과거적이고 반<sup>73</sup>미래적이며 현실적인 것을 관념적 외피 가운데에 쌓던 과도적 양식으로서의 낭만주의는 부정된 것이다.

사실주의문학의 성립과 함께 사회생활에 있어 자본주의 체제는 승리적으로 확립되고 르네상스 이래로 부절<sup>74</sup>히 인간적 생활 위에 썩

<sup>56</sup> 부정할 수 없는: ‘定式化된’(원 발표문).

<sup>57</sup> 그것은 문학이 본래: ‘文學이라는 것이 또’(원 발표문).

<sup>58</sup> 이기 때문에: ‘이라면’(원 발표문).

<sup>59</sup> 「논리」와 원 발표문 모두 ‘事實的’이라 되어 있으나 문맥상 ‘寫實的’이 더 타당하였다. 다음 문장의 ‘사실적’도 마찬가지이다.

<sup>60</sup> 「논리」에는 ‘客觀的’으로 되어 있으나, 원 발표문에는 ‘主觀的’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 원 발표문의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sup>61</sup> 원 발표문에는 이 사이에 ‘따라서’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다.

<sup>62</sup> 상태에 도달한다: ‘完美的 狀態를 차를 수가 있을 것이다’(원 발표문).

<sup>63</sup> 사실주의의 과정은: ‘寫實主義로의 迫切은’(원 발표문).

<sup>64</sup> 있으므로: ‘잇스며, 또, 編輯의 關係도 잇고 함으로’(원 발표문).

<sup>65</sup> 문학이 발흥하는: ‘文學의 勃興의’(원 발표문).

<sup>66</sup> 시민적: ‘資本的’(원 발표문).

워졌던 종교적 교권적<sup>67</sup>인 일체의 정신적 우상은 제거된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상의 리얼리즘적 정신은 생산력의 발전, 자연과학의 흥륭과 함께 생탄<sup>68</sup>한 실증적 사상과 개인주의의 문학상 반영이다.

그러나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구별되는 것은 전자가 긍정적인 대신, 후자가 부정적인 데 있다.

즉 전자는 지배적 시민이<sup>69</sup> 확립된 체제에 대한 평화적 긍정과 만족에서 있는 대신, 후자는 그 사회 확립 후에 얼마 안 가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선 소시민의 불평불만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자연주의는 대시민<sup>70</sup>이 어떠한 사회 조적을 만들었나 하는 것을 과학적인 정밀성을 가지고<sup>71</sup> 묘출<sup>72</sup>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sup>73</sup>

이 경향 내에 졸라<sup>74</sup> E. Zola · 입센<sup>75</sup> H. J. Ibsen 등 많은 구라파문학의 거성<sup>76</sup>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로부터 아주 눈을 감아버리는 부정적인 것의 하나로 ‘예술을 위한 예술’의 사상이 또한 머리를 들고 발전한 것이다.

발자크, 스탕달, 메리메<sup>77</sup> P. Mérimée 등 사실주의 작가의 ‘몰아’적 태도란 한계적인 것이어서 결국 그들 리얼리스트에게 있어 공통적인 것은 개인주의적 기분이었다.<sup>78</sup>

스탕달의 예고이즘, 메리메의 객관주의적 협애성<sup>79</sup>, 발자크의

해부학적 방법, 부분에 대한 편애 등에 있어<sup>72</sup> 주관은 빠짐없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스탕달과는 반대로 외면적 현실을 통하여 내부 현실을 파악하려는 발자크는<sup>73</sup> 세목<sup>74</sup>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능히 세계 사실주의문학, 아니 문학적 불란서의 수령<sup>75</sup>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시민사회적 흥륭기의 대표적 사상가인 콩트<sup>76</sup> A. Comte가 그의 철학 가운데서 힘찬 전진의 논리를 발전시킨 ‘진보’의 개념과 더불어<sup>77</sup> 곧 ‘질서’의 개념을 대립시킨 것과 동일한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제<sup>78</sup> 사실적인<sup>79</sup> 것 가운데 내포된 낭만적 정신은 발전의 개념의 반대의 것으로서 19세기 문학상에 작용하였고, 18세기에서 그와 반대로 낭만주의는 과거로부터 발을 빼자는 미래에의 이상으로 특징화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18세기의 낭만주의문학의 낭만적 정신은 사실적인 것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모순되면서 그것의 부정자<sup>80</sup> 대립자<sup>81</sup>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까지의 문학에 있어서는 사실적인 것과 낭만적 정신은 통일되지 않고 항상 서로 모순되고 대립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의 분리는 이때까지 문학이 생산된 사회의 성질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내적으로<sup>77</sup> 분열된 사회이었기

<sup>67</sup> 시민이: ‘뿌르주아지-가’(원 발표문).

<sup>68</sup> 대시민이: ‘政治의는 無端이라 말하며 그들은 大뿌르주아가’(원 발표문). ‘無端’은 ‘無緣’의 오직인 듯하다.

<sup>69</sup> 정밀성을 가지고: ‘精密性 가운데서’(원 발표문).

<sup>70</sup> 한다: ‘할 것이다’(원 발표문).

<sup>71</sup> 사실주의-기분이었다: ‘寫實主義의 代表에 作家가, 모두가—그 ‘沒我’의 限界가 그어져서, 結局, 모든 ‘레알리스트’에게 잇서 共通的인 것은, 個人主義 그것이다.’(원 발표문)

<sup>72</sup> 스탕달- 등에 있어: ‘스탄다-르,의 ‘예고이즘’에 맞‘잇’의 오식-편차서 ‘메리메,의 客觀的‘主’의 오식的의 眞實性에 잇서, ‘발자크,의 解剖學的方法에 잇서 部分에 대한 偏愛 가운데서’(원 발표문).

<sup>73</sup> 원 발표문에는 이 사이에 ‘表意的인’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다.

<sup>74</sup> 원 발표문에서는 이 사이에 ‘-(졸라)’라고 인용의 출처를 밝히면서, ‘문학적 불란서의 수령’에 따용표를 붙여두고 있다.

<sup>75</sup> 개념과 더불어: ‘概念에도’(원 발표문).

<sup>76</sup> 제 사실적인: ‘諸 主觀, 寫實的인’(원 발표문).

때문이다.

왜 그런가를 한 말로 말하면 이때까지의 사회에서는 진보와 질서라는 것은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서로 반발하였기 때문에 사실적인 것과 낭만적 정신은 항상 배치<sup>77</sup>된 것이다.

즉 현실에<sup>78</sup> 만족하려면 일체의 진보를 부정하여야 되고, 그 진보의 입장에 서자면 현실을 부정해야만 하였으며,<sup>79</sup> 그것은 또다시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새 주인에 의하여 부정되었기 때문에 현실성과 의식성을 문학 상의 완미<sup>80</sup>한 형태로 통일하지를 못한 것이다.

이것은 전혀 인류의 사회생활의 내적<sup>81</sup> 대립과 분열의 사실이 문학을 제약한 것이다.<sup>82</sup>

<sup>83</sup>그러므로 그들은 완미한 역사주의와 진보의 입장에 설 수가 없고 일시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체하다가 곧 그 반대자의 입장, 즉 그들이 일찍이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낡은 세대와 근사<sup>84</sup>한 반역사주의적인 질서 옹호자로<sup>85</sup>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사실이 문학상에 반영한 최대의 사실은 서구 자연주의문학에 있어서의 부정적 리얼리즘의 발생 그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한정 내에 있던 사실주의나마도<sup>86</sup> 주관적 낭만적인 소시민의<sup>87</sup> 리얼리즘에 의하여 다시 사실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은 우심<sup>88</sup>한 상충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77 내적으로: '階級的으로'(원 발표문).

78 「논리」에는 '現實'으로 되어 있으나, 원 발표문에 의거해 수정했다.

79 입장에-하였으며: '立場에만 서자면 現實의 否定에 서야만 하며'(원 발표문).

80 내적: '階級的'(원 발표문).

81 것이다: '結果이다'(원 발표문).

82 원 발표문에는 이 앞에 '(中略)'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83 옹호자로: '擁護者의 立場으로'(원 발표문).

84 원 발표문에서는 이 사이에 '보다 더'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

85 소시민의: '소부류주어'(원 발표문).

그리고 양자의 범주가 최대한의 명확성을 가지고 대립된 것도 시민의<sup>86</sup> 문학이며 양자를 다 같이 그 독자적 특성 위에서 실현해본 것도 시민의<sup>87</sup> 사회였다.<sup>88</sup>

즉 이 시대의 문학 이외에 어떠한 시대의 문학도 이만큼 명확히 사실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이 대위적<sup>89</sup>對位的으로 최대한도에서 대립된<sup>90</sup>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화, 구비<sup>91</sup>의 원시적 문학에서 볼 수 있는 사실과 낭만의 불분명한 상호관계로부터 18~9세기의 낭만주의적, 사실주의적 문학이 도달한<sup>92</sup> 과정은 의심할 것도 없이 문학의 발전과 자기완성의 오랜 과정이다.<sup>93</sup> 이 기초에는 고대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로 이르기까지의 전<sup>94</sup>진화의 역사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발전의 전<sup>95</sup>도정은 다음의 특징적 사실을 명확히 한다.<sup>96</sup>

이 가운데는 콩트의 사회의 진보와 질서의 개념 가운데 내포하고 있고, 칸트. Kant에 있어 이성의 실천성과 순수성의 대립으로<sup>97</sup> 표식화<sup>98</sup>表式化되었던 기간적<sup>99</sup>轉的인 것인,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대립이<sup>100</sup>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주지<sup>101</sup>와 같이 계급사회에 고유한 것이며, 시민사

86 시민의: '資本主義'(원 발표문).

87 시민의: '資本的'(원 발표문).

88 이 다음에 원 발표문의 다음 문장이 생략되어 있다. "古典主義 文學에 대하여 浪漫主義 寫實主義가 順序는 달리 하여도 結局 極端的으로 自己를 特徵化한 것은 事實이다."

89 대립된: '明確한'(원 발표문).

90 도달한: '成就한 具體化的'(원 발표문).

91 과정이다: '過程이며'(원 발표문).

92 원 발표문에는 이 다음에 '(中略)'이라 표시되어 있다.

93 실천성과 순수성의 대립: '實踐的 純粹的 對立'(원 발표문).

94 생산관계의 대립이: '生產關係가'(원 발표문).



회<sup>95</sup>에 와서 최대한도로 확대된 것이다.<sup>96</sup>

물론 리얼리즘은<sup>97</sup> 현실의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현실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절<sup>不絶</sup>히 변하고 발전하며 소멸하는 긴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다.<sup>98</sup>

그러므로 우리의 '사실주의'는 과거의 것이 고정적 정력학적<sup>靜力學的</sup>이었음에 반하여 그것은 동적 다이나믹한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sup>99</sup> 만족치 않고 명일과 미래에로의 부단한 전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다.<sup>100</sup> 즉 이것은 키르포친<sup>V. Y. Kirpotin</sup>의 용어를 빌면 '현실적인 동상', 현실을 위한 의지, 그것이 이 낭만적 정신의 기초이다.<sup>101</sup>

동시에 중요한 것은 과거의 리얼리즘이 몰아적 객관주의로 말미암아 도달치 못한 객관적 현실의 진실한 자태를 파악할 수 있다.<sup>102</sup> 고정된 표면적인 것만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그 발전에 있어서 본질적인 제 관계에 있어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낭만적 정신 —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인류사회를

광대한 미래로 인도하는 정신이 없이는 진정한 사실주의도 또한 불가능한 것이다.

즉 주관과 객관을 진실로 통일하고, 현실 가운데서 비본질적인 일상성의 속박한 제이의적<sup>第二義的</sup> 왜사 <sup>왜사</sup>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고 혹은 그것을 뚫고 들어가 그 가운데 움직이는 본질적 성격의 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창작이론과 문학의 이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성의 속박한 실재에 만족하고 본질을 빼어 놓고 비본질적 왜사에만 종사하는 표면적인 공허한 리얼리즘에 — 트리비얼리즘<sup>103</sup> 그치고 만다.

이것은 신문학<sup>新文學</sup>을 낳은 문학 이하의 수준으로 몰아넣는 허위의 사실주의이다.<sup>104</sup>

95 시민사회: '資本家 社會'(원 발표문).

96 이 다음에 원 발표문에서의 다음 단락이 생략되었다. "그럼으로 주로文學에 있어서의 浪漫的 精神은 決코 過去 文學에서 보든 바와 같치 寫實的인 배것과—편재 矛盾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寫實的인 것의 完實한 理想이다."

97 리얼리즘은: '리얼리즘, 이우리는'(원 발표문).

98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過程을 말하는 것이다'(원 발표문).

99 원 발표문에서는 이 사이에 '絶對的으로'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다.

100 원 발표문에는 다음 단락이 여기 삽입되어 있다. "同時에 우리들은 언제나 未來에 대한 고뇌는 理想이 存在한다. / 이 理想은 決코 非科學的인 非現實的인 想像의 產物이 아니라 現在의 現實의 發展하는 運動의 將來가 우리들 爲하야 가져올 必然的인 世界에 對한 憧憬 그것이다."

101 이 다음에도 원 발표문에는 다음 문장이 삽입되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意志 그것은 (藝術) 非科學 非現實과 關係하는 데 '개'의 오식—편재 아니며 科學과 現實과, 未來 가운데 그 現實的 基礎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02 원 발표문에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빠져 있다.

103 원 발표문에는 '-트리비얼리즘에'라는 구절이 빠져 있다.

104 원 발표문에는 이 다음에 다음 문장들이 삽입되어 있다. "未來가 그 根本 特徵에 있어서 이만치 獨특히 人類의 앞에 明示된 일이 없는' 이 時期에서 '未來가 바로 우리들의 生活의 한가운데 있는' 壯大'壯大'의 오식일 것—편재한 時代의 文學이 現實의 巨大한 發展과 未來를 正確히 하고 커—다란 情熱을 가지고 把握치 않는다면 寫實主義는 不可能하다. (…중략…) / 藝術文學의 이 功利的 意義는 無理로 結論되는 것이 아니다. 必然의 길에서, 不可避的으로, 同時에 文學이 眞實한 理想과 一致하면서 統一되어 가는 것이다. / 그럼으로 藝術에 관한 '典型的 環境 가운데의 典型的 性格'을 獨특히 具體化하는 文學 가운데서 兩者는 統一되어 가는 것이다. / 이것이 우리들의 文學의 綜合 '스타일'로서의 性質의 本質의 一面이다. (…下略…) / '追記' 이 課題는 다음에 詳論해야 할 것을 말해두고 이곳에서는 問題의 提出에만 긋칠 수밖에 없다."